



Global Story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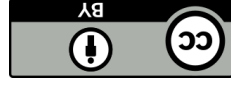
globalstorybooks.net

탐과 독수리

✎ Ann Nduku

👤 Wiehan de Jager

📄 Michelle kim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Internation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



탐과 독수리



✎ Ann Nduku

👤 Wiehan de Jager

📄 Michelle kim

3

🗨️ 한국어



옛날 옛적에, 닭과 독수리는 친구였어요.
그들은 다른 새들과 평화롭게 살았죠. 아무
도 날 수 없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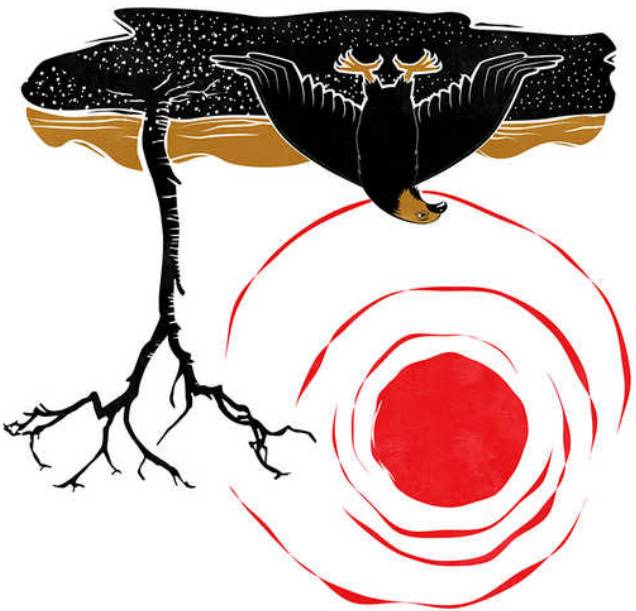


독수리 날개의 그림자가 땅에 나타날때, 닭
은 병아리들에게 충고했어요. “이 아무것
도 없는 땅에서 부터 피해.” 그러자 병아리
들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
요. 우리는 도망갈 거예요.”

다음날 독수리가 왔을 때, 닭은 모래를 파헤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늘은 없었죠. 그래서 독수리는 아주 빠르게 날아와 뼈아리한 머리를 잡고 멀리 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 독수리는 나타날 때마다 모래를 파헤치고 있는 닭을 봤어요.



어느 날, 땅에 먹은 게 더 이상 없게 되었어요. 독수리는 먹은 것을 찾으러 아주 멀리 걸어 갔어요. 그녀는 지쳐서 돌아왔어요. “공명히 더 쉽게 가는 방법이 있을까야!” 라고 독수리가 말했어요.





하룻밤을 잘 자고 나서, 닭은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녀는 다른 새들한테서 떨어진 깃털을 줍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 주운 깃털들을 우리 깃털에 붙이자, 그러면 우리가 멀리 다니는게 더 쉬워 질거야.” 라고 닭이 말했어요.



“나에게 하루만 줘, 그러면 네가 날개를 고치고 다시 음식을 찾으러 날아갈 수 있어.” 라고 닭이 독수리에게 부탁했어요. “그럼 하루만이야, 만약 네가 그 바늘을 찾지 못하면, 너의 병아리들 중 한마리를 줘야돼.” 라고 독수리가 말했어요.

그 마을에서 독수리가 돌아왔어요. 그녀는
 여행 중 느슨해진 닭개를 고치려고 바블름
 돌려달라고 했어요. 닭은 찬장을 찾아
 보고 부엌도 찾아보고 마당까지 찾아 뛰어
 오. 하지만 그 바블름 찾을 수 없었어요.
 그 마을에서 독수리만 바블름 가지고 있어
 서 독수리가 처음으로 바블름 시작했어
 요. 그녀는 아들다공 닭개를 만들고 닭워
 폼 폭이 닦았어요. 닭은 바블름 빌렸지만
 바블름이 찢은 바블름. 그녀는 바블름 찬장
 위에 용력하고 애타게 먹은 것을 해주려
 고 부엌에 틀어 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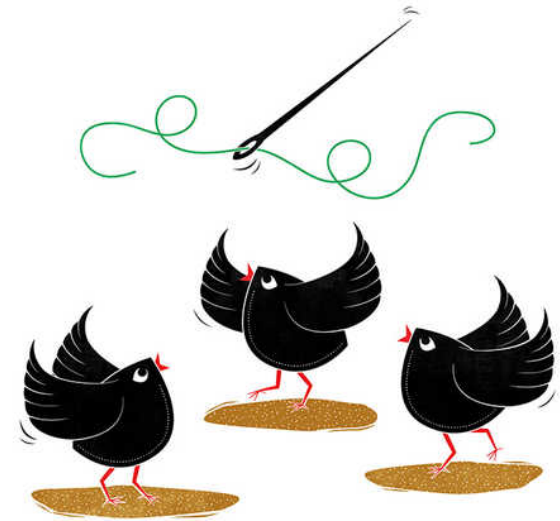


그날 오후, 독수리가 돌아왔어요. 그녀는
 여행 중 느슨해진 닭개를 고치려고 바블름
 돌려달라고 했어요. 닭은 찬장을 찾아
 보고 부엌도 찾아보고 마당까지 찾아 뛰어
 오. 하지만 그 바블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새들은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을 봤어요. 그들도 날개를 만들려고 닭에게 바늘을 빌려 달라고 했어요. 곧 새들은 하늘 곳곳을 날았어요.



마지막 새가 바늘을 돌려 주려고 했을 때 닭은 그곳에 없었어요. 그래서 병아리들이 바늘을 받아 갖고 놀기 시작했어요. 노는 것이 싫증이 났을 때, 바늘을 모래에 두고 왔어요.